

한라시론



강 종 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서 식사를 한다고?! 하물며 제 돈 내가며 일부러 먹으러 간다고?! 갑작스런 정전으로 한 순간 어두워진 게 아니다. 사망을 둘러봐도 불빛이라곤 하나도 없다. 더듬더듬 겨우 찾은 포크로 샐러드를 먹고, 가까스로 잡은 나이프로 고기를 자른다. 결국 그마저 포기한 채 한 입 한 입 육여넣기 바쁘다.

그 공간에 들어선 순간부터 빠져나올 때까지 두 눈은 무의미하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다. 까마득한 어둠 한가운데서

‘당싯거리’는’ 그런 미소가 그림다!

식사하는 아주 색다른 공간, 블라인드 레스토랑(Blind Restaurant). 영국 사회적기업이다.

“그런 댈 누가 가”, ‘별 미친 짓을 한다’, 아무도 발걸음 얹을 그 식당이 사람들로 북적댄다. 요새말로 ‘핫플(Hot Place)’인 셈. 기다리는 손님으로 장사진을 이룬다. 왜 그럴까?

한 번이라도 다녀갔던 사람들은 다들 놀랍다 입을 모은다. 칠후 같은 어둠도 아랑곳없이 자신들을 돕는 이들 때문.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시각장애인을 마주한다. 더 이상 그들은 ‘능력 없는(Disable)’ 사람이 아니다. ‘다른 능력을 가진(Different Able)’ 조력자다. 경의심마저 든다. 어쨌든 부랴부랴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서야 새삼 감사한다. 바로 자신의 눈이 온전함에. 그래서일까 불편하기 그지없는 ‘깜깜이 식당’을 기꺼이 다시 찾는다.

또 다른 풍경 하나. 갓난아이가 유

치원에 엄마와 함께 등장한다. ‘꼬마 교사’라 불리는 말 못하는 선생님. 꼬마교사와 유치원생들은 부득이 마음과 몸짓으로 소통하고 서로의 감정을 읽어낸다. 사회적기업 ‘공감의 뿌리’는 이렇게 출발한다.

수업의 골격은 이처럼 단순하다. 이게 과연 교육일까 싶다. 하지만 9개월간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유치원생들은 너무나 달라진다. 갓난아이가 ‘꼬마교사’를 통해 저마다 간직하고 있는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감정을 발견한다. 표현하는 능력 또한 길러진다. 집단 따돌림도 90퍼센트나 줄었다 한다. 조그만 유치원 두 곳에서 시작된 ‘공감의 뿌리’는 캐나다 9개 주는 물론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두 사례 모두 낯설다 못해 파격적이다. 그만큼 울림이 크다. 공감과 소통의 혁신적 방식... 이제는 새로운 모색이 필요할 때다. 무엇보다 포

스트 코로나 뉴노멀(New Normal) 시대라 더더욱 그렇다.

‘당싯거리다’라는 우리말이 있다. 어린아이가 누워서 팔다리를 찡찡듯이 잇따라 귀엽게 움직이는 모양을 말한다. 방긋 웃는가 싶더니 눈에 힘을 주고 팔짓 다릿짓 한다. 여간 대견하고 귀여운 게 아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자극으로 생기는 ‘반사’와는 사뭇 다르다. 눈앞에 보이는 보호자를 보며 방긋 웃기도 하고 손발을 움직이는 신나는 반응이다. 생후 1개월 반 즈음 보이는 이런 아이들의 반응을 ‘사회적 미소’라 부르기도 한다.

어쩌면 정작 어른인 우리 모두에게 절실한 미소가 아닐까?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가 일상화된 오늘, 가까이 다가서기도 어렵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지만 ‘당싯거리’는 그런 미소가 그림다. 눈인사 건네며 ‘빙새기’ 웃는 모습, 정말 그림다.

사설

스쿨존 과속 여전, 어린이 안전 우려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질주하는 차량들이 여전합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을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 의무를 대폭 강화한 법입니다. 스쿨존에서는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를 어기면서 어린이 교통사고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과속운전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면서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광양초등학교 인근에는 좁은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많고 차량과 오토바이들이 빠른 속도로 달렸습니다. 또 중앙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도 과속운전을 일삼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50km로 달리는 차량이 적잖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쿨존의 과속운전 실상은 제주경찰청 자료에서도 그대로 보여주

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도내 스쿨존에서 적발된 과속 단속 건수는 모두 1만7161건에 달합니다. 2019년 한햇동안 적발된 1만2211건에 비해 무려 40.5%나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는데 그 다음달인 4월에는 3868건이 적발됐습니다. 올해 들어 월별로는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아직도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아 걱정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9개월째로 접어들었는데도 스쿨존을 무시하는 차량이 잇따르고 있어 그렇습니다. 과속운전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주위를 제대로 살피려면 운전자가 속도를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동차를 몰다보면 운전자가 스쿨존에 진입한 사실을 뒤늦게야 인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만큼 운전자가 스쿨존에 들어오기 전부터 쉽게 알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눈에 띄게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화 미룰 수 없다

도내 음식물쓰레기처리 문제는 지역사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물량 폭증에도 시설 증축이 제때 안 이뤄져 ‘처리 대란’ 위기를 몇 차례 겪었는가 하면 음식물 쓰레기 악취 등 관련 민원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해법으로 거론돼 온 식당 음식물 쓰레기 감축은 핵심 대안이자,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주도가 최근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폐기물 처리시설(감량기) 의무화 시행 유예를 또 검토중입니다. 당초 올 1월부터 시행될 의무화 방침을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로 늦췄는데 다시 업계 어려움을 이유로 유예를 검토한다는 겁니다. 도내 200㎡ 이상 음식점의 하루 음식물 쓰레기는 2018년 기준 52.4t으로 전체 발생량의 25%에 이를만큼 많습니다. 감량기 설치 의무화를 해야 할 당위성입니다. 이미 작년 10월 330㎡ 이상 음식점이 시행에 들어갔고, 200㎡ 이상~330㎡ 미만 음식점까지 확대

적용을 앞둔 상황입니다. 현재 제주시 지역 200~330㎡ 미만 대상 음식점 58개소는 감량기를 설치했습니다.

대상 음식점의 경영 어려움이 의무화 유예 검토 이유입니다. 업계 입장도 이해되지만 도 전체적인 상황을 더 감안해야 합니다. 예고된 행정조치가 이르면 더욱 유요 시행되지 않는 건 나쁜 선택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 음식점 감량기 구입과 월 전기료 등 지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통해서라도 예정대로 제도시행을 해야 합니다.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 시설 노후화로 정상 가동에 차질을 빚고, 쌓인 물량에 의한 심한 악취 민원을 연제까지 방관할 건지 답답합니다. 봉개동 사용기한도 내년 10월인데, 색달동 대체시설 시공-시운전은 32개월 소요 예상으로 ‘음식물 대란’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도가 관련 대책들을 자꾸 ‘실기’해선 안됩니다.

편집국 25시

슬기로운 연말 정리

급한 원 지사를 향해 ‘(클린턴 전 대통령과) 원 지사님은 다르다’는 에두른 비판까지 땀을 흘리며 마무리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접어들면서 미흡한 동선 공개가 도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사이 원 지사의 대권 도전 행보와 맞물려 원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수년째 지속된 제2공항 건설 갈등의 해결과 제주4·3희생자 배상금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또다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씁쓸함을 안기고 있다.

여기에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와 문화 및 관광분야 등이 감액 편성되면서 코로나19 장기화 속 지역경제에 더욱 악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도의회 예결특위의 우려마저 제기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 도민 불안감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 제시가 필요하다.

해묵은 현안들의 명확한 정리 없이, 코로나19 재유행 불안감 속 새해를 맞게 될까 걱정스럽다.

뉴스-in

원 지사 “제주, 코로나 도피처 아니다”

과도한 방문 자제 당부

○… ‘한 달 살기’ 체험 관광객(제주 83번째 확진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제주도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

원 지사는 2일 기자회견에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제주는 코로나의 탈출 장소도, 도피처도 아니다”라며 과도한 방문은 자제할 것을 당부.

또한 원 지사는 한 달 새 확진자 26명이 발생하며 불안감이 고조되고 도민 여론상 동선 공개 확대 요구에 따라 “이동 동선 등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발표하겠다”고 강조. 백금택기자

시민회관 추진 방향 관심

○… 지난 9월 생활SOC복합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내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시민회관을 복합문화·체육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에 관심이 고조.

시는 지난 1일 시민회관 공간구

성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도서관, 가족·체육센터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공공건축가 등의 의견을 수렴.

시 관계자는 “시민회관의 상징성과 건축적 가치를 살리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 배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이를 설계지침 등 사업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언급. 문미숙기자

고교 졸업 동시에 ‘충성’

○… 제주 고등학교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부사관으로 입대를 선택해 눈길.

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중앙고 3명, 한림공고 8명, 영주고 3명 등 총 14명의 학생이 해병대, 특전, 육군,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

이번 합격은 도교육청에서 군부사관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설명회와 집중교육을 진행하는 ‘군부사관 아카데미’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군부사관 아카데미로 총 95명이 합격. 송은범기자



오 은 지
정치부 차장
ejoh@halla.com

코로나19 장기화 여파, 원희룡 도지사의 대권 도전 행보와 ‘송악선언’, 제2공항 건설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비롯된 갈등,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제주 미래를 위한 제주형 뉴딜 전략과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 등등. 올 한해 제주지역사회를 흔든 이슈와 현안들이다.

특히 원 지사의 잦은 출장과 대권 도전 행보에 따른 도정 공백·소홀 우려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에서 지적된 ‘단골 메뉴’였다.

풍찬노숙하시라는 빠있는 조인(?)부터 ‘지사·대선 양다리’ 지적에, 행정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차라리 AI 인공지능 지사를 뽑는 게 낫겠다.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을 연

부 고

김영진(前 KT 비상기획실장) 어머니 원주씨 육순(향년 92세)께서 서기 2020년 12월 2일 05시 58분경에 별세 하셨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 ▶ 일 포: 2020년 12월 5일(토요일)
- ▶ 발인일시: 2020년 12월 6일(일요일) 오전 7시
- ▶ 발인장소: S-중앙병원(이호동 소재) 장례식장 제1분향실
- ▶ 장 지: 어음리 선영

아들 김 영 진 며느리 박 순 희
 용 석 오 정 심
 경 석 고 미 효
 딸 김 의 숙 사 위 김 창 든
 재 심 김 중 진
 손 자 김 대 식 외 손 김 성 희
 기 현 영 관
 손 녀 김 나 은 현 정
 지영
 문영
 문주 호 상 김 경 중

※연락처 : 김영진 010-9898-1132
 김용석 010-9840-7676
 김경석 010-3698-5631
 김경중 010-8663-7028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 성 명 : 망 최정환(1954. 9. 7.생)
- 최후주소 : 제주시 신대로16길 16, 201호(연동)

상기자는 2020년 8월 30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0년 11월 25일 제주지방법원 2020노단66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제주시 신대로16길 16, 201호(연동)

※ 송달장소 : 제주시 남광복3길 7, 3층(이도이음, 성수빌딩)
 송달영수인 법무사 정지권

2020년 12월 3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황정열, 최인혁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회번호 2018-GN1-11-0011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제주시 동광로 4, 삼음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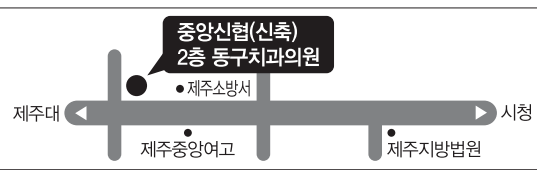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 장 신 동 구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756-2833